<지구와사람 2020 창립 5주년 컨퍼런스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
세션2 '생태문명과 생태여성주의' 발제문 (2020.10.10.)

생태여성주의[1] 움직임과 토마스 베리 사상의 만남

, 여성환경연대 대표

베리의 사상은 엄청나다. 종적으로 그의 사상은 150억 년 전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인류문명의 발달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가 능동적으로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생태대(Ecozoic era)까지 뻗어있고, 횡적으로 그의 사상은 신학과 종교학, 철학, 역사학과 고고학, 물리학과 우주학, 생태학을 포괄하며, 심리학, 교육학, 인류학 등과도 닿아있다. 게다가 그는 낭만주의 시인이기까지 하다!

이번 발제의 1절(김양희)에서는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지극히 일부분 접한 생태여성주의자(에코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생태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는지, 서로 힘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고,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절(윤정숙)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최근 전개되는 생태여성주의 논의 및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고, 젊은 에코페미니스트들과 토마스 베리의 조우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념이자 운동으로서의 생태여성주의를 토마스 베리의 사상과 연결함으로써 생태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사유의 확장과 실천력의 증대를 위한 고민을 나눌 수 있기 바란다.

들어가며

엊그제 (사)여성환경연대[2] 부설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는 비대면으로 총 6회에 걸친 에코페미니즘 읽기 세미나를 시작했다. 전국에서 100명 가까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과 (소수의) 남성이 신청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대안적 삶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진 까닭인지 신청자 수가 많아서 놀랐다. 에코페미니즘을 개괄한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 한국의 아카데미에서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 토로가 있었고, 에코페미니즘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안, 채식과 동물권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편, 생존과 자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적·생태적 사유와 실천이 쉽지 않다고 호소한 젊은이들도 있었다. 또한, 인간이나 여성만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동의하는 이들도 지구적 차원에서 강이나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이 드러났다.

토마스 베리는 지구의 안녕이 최우선이며, 인간의 안녕은 여기서 파생된다고 보고, "인간 중심적 규범에서 지구 중심적 규범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토마스 베리, 2000: 85). 그

1) 이 글에서는 생태여성주의와 에코페미니즘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2) 에코페미니즘에 기반 해 1999년 출범한 NGO. http://ecofem.or.kr/

저성장 시대,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가 아닌 젊은이들은 웬만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고, 특히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중화장실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일상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시달리는 마당에 지구나 우주는커녕 환경 얘기도 뜨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토마스 베리의 사상이나 에코페미니즘을 확산하는 데 큰 도전이다. 에코페미니즘은, 도본느(D'Eaubonne, 1980)[3]가 주장한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종종 탈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4]. 에코페미니즘의 전환적 이념을 구현하는 정치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토마스 베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상이지만 실천력과 운동성을 담보하고 있는가?[5]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은 결국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토마스 베리나 에코페미니즘은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1. 토마스 베리의 사상과 생태여성주의

생태신학자이자 문화사학자, 지구학자인 토마스 베리는 "지구 중심의 영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 중 한 분"(르웰린 보간리, 2013: 30)으로 평가된다. 인간은 현재 어떤 생물종이 생존할 것이며, 어떤 생물종이 멸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정도로 지구 생명 체계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다(토마스 베리와 브라이언 스윔, 1992: 9).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는 생명체 생존의 맥락인 지구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여 자신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토마스 베리는 이 위험한 시점에서 우리를 안내하여 생태대(Ecozoic era)를 실현하도록 돕는 길잡이로 "과학을 넘어 자연세계에 대한 가장 친밀한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우주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진화의 물질적(학문적/과학적) 측면들과 영적(창조에 대한 서사) 측면을 하나로 통합하는 '우주 이야기'를 썼다. 더 나아가서 '우주 이야기'를 길잡이 삼아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향한 전 지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 '위대한 과업'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토마스 베리는 인류가 지구생태계와 화해를 이루는 '위대한 과업'의 과정에서 여성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보고, "생태계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생태시대를 생태여성주의 시대(ecofeminist period)"라고 불렀다(토마스 베리, 1988: 213). 한편, 생태철학자 존 캅은 생태문명으로 가는 "건강한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공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전은 에코페미니즘(생태여성주의)"이라고 한 바 있다(존 B. 캅, 2018: 110). 이렇듯 생태문명 논의에서 생태여성주의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토마스 베리와 존 캅과 같은 분은 왜/무슨 근거로 여성(의 지혜)에 기대를 거는 것일까[6]? 그러한 기대를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3)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스와즈 도본느가 <페미니즘 또는 파멸>이라는 책에서 우주 속의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여성들이 가진 생태적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했다.

4)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플라스틱을 덜 쓴다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5) 젊은이들과 토마스 베리의 사상을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언어가 필요한가?

6) 어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존 캅 교수께 이러한 평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였더니,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에코페미니즘이 우주에 대한 형이상학적·물질적(substance) 모델을 공격하고, 그 모델 안의 성편견을 드러낸 점,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 온 오래된 가정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젠더 이슈를 가져온 점이라고 하셨다.

생태운동은 각각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벗어난 새로운 가치창조와 사회구조를 제안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운동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두 가지 운동의 비판적·변혁적 잠재력을 통합시키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Merchant, 1980). 구체적으로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지속되는 요인이 위계적·군사적인 가부장제 문화라고 규정하는 급진적·문화적 페미니즘과, 서구철학과 문화가 인간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연을 격하시키고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를 강화하거나 환경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는 반창고적 효과일 뿐,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연관과 세계관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층생태론의 결합으로 본다(김양희, 김이선, 1993).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들이 여성의 권리와 평등의 관점에서 젠더로서의 여성과 남성, 중심과 주변부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면, 에코페미니즘은 관심을 여성-남성뿐 아니라 자연 및 생태계로 확장하고, 성평등한 인간관계는 물론, 비인간 존재와 자연과의 관계도 평등하게 재편하고자 한다. 심층생태론은 자연 파괴의 원인을 서구의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세계관이라고 보는데 반해, 에코페미니즘은 인간 중심성이 아니라 남성중심적(androcentrism) 세계관이 문제라고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통, 2000: 10; 짐머맨, 2000: 255). 예를 들어, 살레(Salleh, 1984)는 심층생태학자들이 남성중심적·과학주의적 사유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종합하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채 자연과의 연결을 주장하는 생태론은 불완전하고, 자연해방을 다루지 않는 여성해방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는 전제[7]로, 자연해방과 여성해방을 연결시킴으로써 생태적이며 평등한 세상을 이루고자 한다.

2. 토마스 베리와 생태여성주의의 접점들

가. 근대적 세계관과 이원론

토마스 베리는 인간의 자연 착취와 지배의 기저에 근대 철학의 이원론과 기계론적 우주관이 있다고 본다. "우주의 질서가 가장 궁극적이고 고귀한 완성"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과 같이, 일찍이 서구 종교와 우주론적 전통에서는 우주 자체를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세계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4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1347~1349)으로 인해 자연을 혐오하는 의식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정신/인간/영혼과 물질/자연/몸을 절대적으로 분리한 데카르트의 사상에 따라 지구는 영혼이 없는 물질(substance, matter)로 전락했다. 또한 베이컨에 따라 인간은 '아는 힘'으로 자연의 과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자연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인간의 목적을 위해 착취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뉴턴의 물리적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견해가 서구인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기술의 발명과 성장, 자연에 대한 산업적 강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해석했다(토마스 베리, 2000: 112: 142~143).

---

7) 도본느(1980)는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하나의 해방이 다른 하나의 해방과 독립해서 성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근대 철학의 합리적·기계론적 세계관과 그로부터 배태된 모든 종류의 이원론(자연-인간(문화), 감성-이성, 몸-마음, 여자-남자 등)을 거부하고, 생태적이고 다원적이며, 포용적이고 관계적인 사회를 지향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억압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

나. 가부장제

토마스 베리의 문명비판에서 가부장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서구 문명의 전체 과정이 가부장제에 의해, 즉 공격적이고 약탈적인 남성 지배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본다. 가부장제는 "지난 5천 년 동안 서구 사회의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원초적인, 모든 나쁜 것을 초래한 악"이자 '원죄'로 간주된다(토마스 베리, 1988: 215, 220~221).

토마스 베리는 서구 역사를 지배해왔던 네 가지 가부장적 제도로 고전적 제국(식민지, 노예제도 등), 제도 교회(초월적 아버지), 국민-국가(군주국, 식민지, 노예제도, 징병제도, 전쟁 등), 현대의 기업(노동 착취, 화학비료와 살충제 등)을 꼽았는데, 이 제도들이 철저히 남성 지배적이며 주로 남성들이 상상하는 인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222~239). 또, 그는 가부장제 개념을 통해 서구의 역사발전을 설명하는 새로운 해석 (예: 마리자 짐부타스, 거다 러너)을 참고하여 가부장제 전 시대를 모계중심적(matricentric) 시대, 가부장제 시대를 부계중심적(patricentric) 시대, 가부장제 후 시대를 전체중심적(omnicentric) 시대로 구분했다. 전체중심적 시대는 생태계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생태 시대인데, 생태여성주의 시대(ecofeminist period)로 불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자발성과 양육하는 성질이 전통적으로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토마스 베리, 1988: 213).

그는 가부장성을 극복하는데 우주의 모성적인 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인간은 모성적 원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생존하므로 우주의 근원인 '대모Great Mother'라는 상징을 회복하면 우리의 공격적인 태도와 가부장적 지배 원리도 완화될 것으로 보았다. 토마스 베리의 가부장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모성적 여성에 대한 견해는 본질론을 부추길 수 있다[8]. 교차성에 민감하고 생물학에 기반 한 정체성 논의에 거부감을 가진 (에코)페미니스트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해방운동으로 출발했지만 성차별주의가 인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이성애주의(성소수자차별주의), 군국주의 등 다른 '지배의 주의들(isms of domination)'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기에 자연과 환경에 대한 차별을 포함시켰다. 제2기 여성운동[9]과 환경운동, 반전평화운동이 왕성했던 70년대에 시작된 에코페미니즘은 환경파괴나 핵 위협,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가부장제 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 본다.

워렌은 서구 세계의 기본적 신념들, 가치, 태도, 그리고 서구 세계 자체를 형성해 온 것은 억

8) 사라 러딕(1995)이 생물학적 출산자로서 어머니 대신에 '어머니 역할(mothering)'이나 '모성적 사유(maternal thinking')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9) **'68혁명'으로 불리는 시대를 기점으로 진행된 급진주의 여성해방운동. 가부장제 철폐를 강조.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개인의 삶과 일상의 변화를 중시("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반전/평화/생태운동과 연대.**

가부장제이며, 그 목적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가부장제는 그것을 지탱하고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성차별적 개념틀과, 남성 또는 남성과 동일시되는 것에 특혜와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와 행동들로 구성·유지된다. 가부장제는 다섯 가지 특성을 갖는다: ①가치위계적 사고 –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②가치이원론 – 현실을 정 반대의 상호배타적인 짝으로 조직하고 그 중 하나에 더 높은 가치와 지위를 부여한다(예컨대 몸보다 마음에, 정서보다 이성에, 여성적인 것보다 남성적인 것에), ③권력을 지배적 개념(power-over)으로 인식 – 이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④권력을 가진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롭게 하는 특혜, ⑤지배의 논리: 우월성이 종속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논쟁구조를 의미(Warren, 1994: 183~184). 워렌(Warren, 1990: 129~130)은 이 중 다섯 번째인 '지배의 논리'로 <표1>과 같이 인간의 자연 지배와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자연과 동일시되어 온) 여성에 대한 지배의 연결성을 설명한다.

<표1> 인간의 자연 지배와 남성의 여성 지배의 논리적 연결성

인간의 자연 지배의 논리	남성의 여성 지배의 논리
1) 인간은 식물들과 달리,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 2) 이 역량을 가진 존재는 가지지 않은 존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3) 인간은 식물이나 바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4) X가 Y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면, X는 Y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5) 인간이 식물이나 바위를 종속화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된다	1) 여성은 자연 및 물질적인 것과 동일시되고, 남성은 인간적 · 정신적인 것과 동일시된다. 2) 자연 및 물질적인 것은 인간적·정신적인 것에 비해 열등하다. 3)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 4) X가 Y보다 우월하다면, X가 Y를 종속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5) 남성이 여성을 종속화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Warren(1990: 129~130)의 내용을 표로 그린 것임

종합하면, 토마스 베리와 에코페미니즘 모두 가부장제에 대해 비판적이며, 그 극복을 강조한다. 토마스 베리가 "인간은 현재의 가부장적 기능 양식 안에서 생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토마스 베리, 1988: 221)고 단언한 것에 박수를 치고 싶다. 거다 러너(1986: 397)가 "가부장제는 더 이상 남성들 혹은 여성들의 욕구에 봉사하지 못하며, 군사주의, 위계 그리고 인종주의와의 뗄 수 없는 연관성 속에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을 보면 "그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과 함께 매우 고무적이다. 둘다 'Why?'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듯 하지만 문제는 'How?'가 아닐까 싶다.

다. 자연과 여성의 관계

페미니즘은 여성을 자연과 분리하려 했지만 에코페미니즘은 그 연결성에 주목하며, 특히 여성 혐오와 자연 혐오의 상호 연결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배 구조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둔다. 그러나 에코페미니즘은 단일한 이론체계가 아니다.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에코페미니즘(예: 문화적/자연적 에코페미니즘[10], 영적 에코페미니즘[11], 사회구성적 에코페미니즘[12], 사회주의 에코페미니즘[13] 등)으로 분류된다.

오트너(Ortner, 1974)는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종속에 대하여 고찰 한 결과, 그 근원은 '여성의 자연과의 연관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부분의 문화가 여성을 몰가치화 하고 종속시키는데, 그 이유는 그 문화가 평가절하 하는 무엇인가와 여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그 무엇이 '자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인간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고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통해 얻어지는 인간 의식의 산물로, 자연보다 우월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오트너는 여성이 자연과 밀접하게 인식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는 여성의 몸과 기능이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보봐르(1953)는 여성의 생리구조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종의 희생자'임에 틀림없다. 여성의 몸의 주요 부위의 기능을 보면 여성 자신을 위한 기능이나 평안보다는 고통과 불편, 활동에 대한 제약, 더 나아가서 (출산의 경우) 위험을 수반한다. 둘째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구조적으로 여성을 가정이라는 맥락에 위치 지움으로써 자연과 가깝게 인식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은 생물학적(자연적) 기능이 강조되는 자연집단이다. 가정에서 여성은 자연의 일부로 여겨지는 갓난아이를 양육하고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자연과 가깝다고 인식된다. 셋째는 소위 "여성심리"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감성적, 관계지향적, 주관적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타고나거나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과 가깝게 인식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한 워렌의 지배 논리에 따르면 여성은 자연/물질과 동일시되고, 남성은 문화/이성과 동일시되며 후자가 전자보다 가치가 높으므로 전자는 후자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식민화의 논리'가 작동한다.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감정적이고 자연적인 여성은 (자연 집단으로 여겨진) 가정에서 재생산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과 자연이 타자화[14] 된다(Plumwood, 1993).

토마스 베리 역시 "문명의 전반에 걸친 시기 동안 인간 공동체에서 여성을 무시해온 일은 자연에 대한 무시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가부장적 지배 논리 하에 여성과 자연의 연결성은 여성에 대한 무시로, 더 나아가서 공적인 생활과 다양한 사회 제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일로 연결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의 인간성이 심각하게 박탈당했다고 한다(토마스 베리와 브라이언 스윔, 1992: 320)

그 외, 산업 자본주의 경제와 영성 등에 대해 토마스 베리와 에코페미니즘의 해석에 대한 비교는 시간상 다음 기회로 넘긴다.

---

10) 여성은 출산과 수유, 양육 등 (생물학적인) 경험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성성이 남성성보다 우월하다고 봄.

11) 지구를 모성에 비유, 가이아 신화를 강조하면서 고대의 여신 전통의 '영성'을 강조함.

12) 여성-자연 연관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화된 것이므로 벗어나야 한다고 봄

13) 여성-자연의 연관성의 관계가 물질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적.역사적 맥락에서 구성된 것으로 봄

14) 이때 열등하다고 인식되는 지위로 인해 갖는 다양한 억압들이 중첩되어 교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

거다 러너(1986). 강세영 옮김(2004).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김양희, 김이선(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로즈마리 통(2010). '서론: 에코페미니즘', 이소영외 역,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르웰린 보간리 엮음 (2013). 김준우 옮김(2014). 「생태 영성: 지구가 울부짖는 소리」. 한국기독교연구소.

마이클, E. 짐머맨 (2000). '페미니즘, 심층생태학, 그리고 환경윤리'. 이소영외 역,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238~263.

이소영 외 편역(2000).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한신문화사

사라 러딕(1995). 강세영 옮김(2002). 「모성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존 B. 캅(2018). 한윤정 옮김. 「지구를 구하는 열 가지 생각」. 지구와 사람.

카렌 J. 워렌(2000). 에코페미니스트 평화 정치학. 이소영외 역, 「자연, 여성, 환경: 에코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207~236.

토마스 베리(1988). 맹영선 옮김(2013). 「지구의 꿈」.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마스 베리(2006). 박만 옮김(2015). 「황혼의 사색: 성스러운 공동체인 지구에 대한 성찰」. 한국기독교연구소.

토마스 베리(2000). 이영숙 옮김(2008). 「위대한 과업」. 대화문화아카데미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윔(1992). 맹영선 옮김(208). 「우주 이야기: 태초의 찬란한 불꽃으로부터 생태대까지」. 대화문화아카데미.

D'Eaubonne, F.(1980). 'Feminism or death' in E. Marks & I.de Courtivron(eds.) *New French Feminisms: An anthology*.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Freya, M.(2019). 'The dilemma of dualism', in MacGregor, S.(Ed.), *Routledge Handbook of Gender and Environment,* pp. 54~70.

Merchant, C.(1980).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Y.: Harper & Row Pub.

Otner, S.B.(1974). 'Is female to male as nature is to culture?, in M.Z. Rosaldo & L.Lamphere (eds.), *Wome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68-87

Plumwood, Val(1993).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Salleh, A.K. (1984). 'Deeper than deep ecology: The eco-feminist connection.' *Environmental Ethics.* 6.

Warren, K.J.(1990).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2, 2: 121-146.